

계엄·내란에 분노한 광주·전남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민주 “보수정권 자책골 진보층 결집…이준석·이낙연 행보도 영향”

국힘, 지역 보수층 결집한다면 광주 등 두자리수 득표율 기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각 정당들의 득실 계산이 복잡해졌다.

호남을 텃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정당의 최근 행보로 모멸감을 느낀 진보 지지층이 총결집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 21대에서도 광주에서 두자리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됐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사전투표결과 전국 유권자 4439만 1871명중 869만 1711명이 참여해 19.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중 역대 가장 높았던 투표율은 지난 2022년 당시 20대 대통령 선거로 17.57%였다.

민주당 측은 사상 최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으로 최근 보수정당의 ‘자책골’로 인한 진보층의 결집으로 해석한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중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모이고 있다”며 “평일 분주한 일상도 국민의 뜨거운 투표 열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투표만을 손꼽아 기다려온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접함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겠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많았다는 점에서도 민주당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첫날 사전투표율을 평가했다.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 26~27일 가상번호 활용률 무선100% 전화면접으로 대선전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성인 남녀 1005명 대상, 오차 ±3.1%p·95% 신뢰수준, 응답률 14.2%) 결과 사전투표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진보성향 응답자는 58%에 달했고,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57%가 사전투표를 한다고 답했다.

광주일보와 전국 9개 지역 대표 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애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32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 포인트)를 진행해 지난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전남 응답자(189명) 49.2%는 ‘사전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사전 투표 참여의사가 52.5%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13.4%에 불과했다.

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대선캠프가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약속이 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촉발 뒤흔들어도 국민의힘이 자성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로 분류되는 윤 의원을 캠프에 임명했다는 점에서도.

지역 정치권은 “김 후보를 뽑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윤석열 정권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진보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국민의힘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은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두번째 배경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에 대한 진보 여성층의 집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로 점철됐던 대통령 후보 토론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여성혐오 발언은 보수정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란세력과 손잡은 이낙연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의 ‘배신정치’가 호남인을 사전투표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밀려난 후 민주당을 등진 이 고문이 호남과 친정 민주당에 대한 배신을 했다는 점에서도. 안그래도 사전투표율이 높은 호남의 투표율이 더 높이 나온 이유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내란 중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사전투표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전투표율이 높아 본투표율이 낮아 질수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투표 독려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도 두자리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장 위원장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광주지역 지지율이 급상승 했다는 점에서 지역 보수층의 결집으로 분석된다”면서 “남은 선거 운동 기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생애 첫 선거, 사전투표로 했어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광주 화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지역 고등학생 유권자들이 생애 첫 투표를 한 후 봉투에 넣은 기표용지와 투표 인증용 종이를 들고 기념사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하유성(광덕고3),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최장우 광주고등학교의회장(서석고3), 노명선, 김지연(광주여고3) 학생.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라도 정신 배신한 이낙연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전·현직 전남도지사 3명 강력 규탄

전·현직 전남도지사 3명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전라도 정신을 배신한 이낙연은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허경만 전 전남지사(31~32대)와 박준영 전 지사(34~36대), 김영록 지사는 2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내란 세력에 대항 지지를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세 명의 전현직 전남지사는 지난 27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를 향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개인의 안위보다 대의를 위해 헌신했던 ‘전라도 정신’은 도민의 자량이며 자긍심으로, 역대 전남지사들은 전라도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도민의 전폭적 지지로 전도지사와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오른 사람이 사육에 눈이 멀어 민주당의 파괴 세력과 야합을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낙연 전 지사의 야합 선언은 도민과 전라

도 정신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독이자 배신행위로 참담함을 넘어 부끄럽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전라도 정신을 배반하고 전남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이낙연 전 전남지사는 불의한 야합에 대해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내란 세력에 대항 지지를 당장 철회하는 것만이 상처 받은 전남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준석 성적 발언에 민주 “허위사실 저질음란 공세”

이 “후보 가족 검증은 공적 책임”

29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인용한 성적 표현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론 발언에 대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동호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3000만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신변잡기’라며 덮으려 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준석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조 단장은 “대선을 5일 앞둔 시점에 과거 문제를 마치 새로운 일처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댓글을 두고 “그(댓글) 자체도 후보 아들이 썼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자신이 쓴) 댓글인지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이준석 후보의 토론 발언과 관련해선 “(온라인 댓글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닌데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저질 음란 공세를 하려다 보니 창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홍준표, 국힘 향해 “살아남기 어려울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내 탓 하지 마라. 이준

석 탓도 하지 마라”며 이같이 적었다.

홍 전 시장은 “니들이(너희들이) 잘못 선택한 탓”이라며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